
북한이탈주민의 충남 정착을 위한 노력 워크숍

- 일 시 : 2022. 4. 8(금), 14:00 ~ 16:0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충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마련’ 워크숍 계획

- ◇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올바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과 자녀에 대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 요구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을 모색하기 위함

I

개최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충남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충남 체류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 파악 중요
- 충남 체류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를 파악 하고 그에 대한 방안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마련의 방안으로 충남 적응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II

세미나 개요

- 주 제 : 북한이탈주민의 충남정착을 위한 노력
- 일 시 : 2022. 04. 08. 13:30~
- 장 소 :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
- 주 최 : 충남연구원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4:00	30'	[참석자 등록]	
14:00 ~ 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유동훈 원장 (충남연구원)	○ 전체사회 : 윤향희 박사 (충남연구원)
14:05 ~ 15:00	55'	[발제] 좌 장 : 박찬석 교수(공주교육대학교) 발제1 : 김윤태 센터장(아산시북한이탈주민센터) 발제2 : 김정순 부장(서산석림사회복지관) 사례발표1: 이연주(북한이탈주민) 사례발표2: 허현진(북한이탈주민)	
15:00 ~ 15:10	10'	휴식	
15:10 ~ 15:50	40'	[토론] 토론1 : 박종호 교수(중부대학교) 토론2 : 임선우 교수(화신사이버대학교) 토론3 : 김진영 박사(충남연구원) 토론4 : 박춘섭 박사(충남연구원)	
15:50 ~ 16:00		[질의응답]	
16:00 ~		[폐회]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유동훈입니다.

오늘 ‘충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마련’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을 갖고 발제를 해주시는 아산북한이탈주민센터 김운태 센터장님, 서산석림사회복지관 김정순부장님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에서의 삶을 이어가면서 겪은 사례발표를 해 주실 이연주님, 허현진님과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교수님과 박사님들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 33,788명이며 충남에는 약 1,30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는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분리로 인한 한국과의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탈북과정에서 겪은 곤경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고국이라 생각하고 행복을 찾아온 이곳에서 삶의 불안정과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많이 성숙되어 있지만 정착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아직도 개선할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충남연구원 윤향희 박사께서 충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마련’이라는 주제로 워크숍 자리를 마련하였고 북한이탈 관련 기관의 발표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으로 충남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두 분이 참석하여 충남에 체류하면서 겪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각계 전문가분들의 토론을 통해 충남지역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삶 중 중요시되고 있는 안정적 정착과 자녀교육이라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 분들이 한국사회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이 이루어 지기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간에도 이곳 공주 충남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04월 08일
충남연구원장 유 동 훈



목 차



I.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분야별 사례조사 발표 .. 1

아산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김윤탈 센터장

II.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개선방안 9

서산석림사회복지관 김정순 부장

III. 한국생활 적응 사례발표 16

북한이탈주민 이연주

IV.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사례발표 19

북한이탈주민 허현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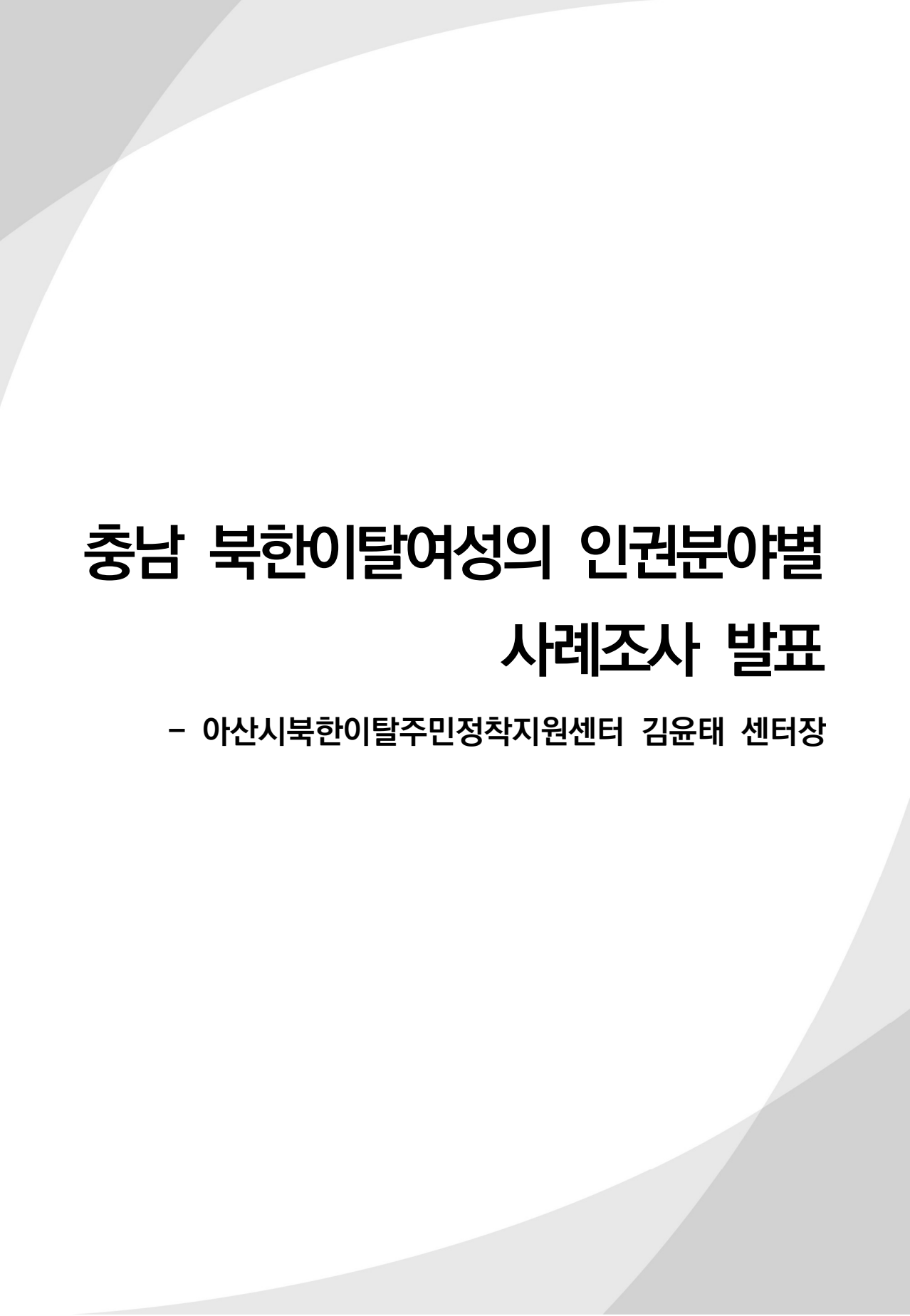
V. 토론문 24

중부대학교 박종호 교수

화신사이버대학교 임선우 교수

충남연구원 김진영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박춘섭 책임연구원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분야별 사례조사 발표

– 아산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김윤탈 센터장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분야별 사례조사 발표

아산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센터장 김윤택

1. 모성권

○ 모성권 측면에서 임신, 출산, 신생아 건강관리 등과 관련하여 어려웠던 점 에 대해 살펴봄.
모성권에 해당하는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는 인터뷰 참여 자는 1명(10살 여아)이었음.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육아권

○ 육아권 측면에서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알아봄.

“3학년부터는 돌봄이 안되서 제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요” 라고 응답한 결과로부터 생계를 위한 장시간 노동과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드러남. 또한 자녀의 돌봄 지원, 학습(영어,수학)지원, 학원비 지원, 예체능교육비 지원, 초등학교 생활에서 따돌림(놀림) 받지 않는 지원 등의 욕구가 파악됨

※ 북한이탈학생 및 제3국출생 자녀의 일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봄

3. 교육권

○ 교육권 측면에서 자녀의 학교 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봄

-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중국교육과정에 대한 학력인정이 되지 않음. 학력 인정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시도하지 않음. 검정고시 보고, 혼자 공부하고, 이주민센터에서 한국어교육, 청소년 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 등을 받고 있음
-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대학진학 지원
- 진로지원정보제공 : 어떻게 대학준비를 해야 할지 모름. 드림학교의 경우 진로지도가 약함
- 대학기숙사 비용(기숙사 우선권 부여) 혹은 월세비 지원(자녀가 대학 공부시 주거의 어려움)
- 학교별 생필품 지원(초등학생 : 학원비 지원, 중학생 : 교복비, 학용품비 지원, 고등학생 : 교복비 지원) 확대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의료비 지원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주거보장은 매우 중요하고,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줌. 그래서 살고 있는 집에 만족스럽지 않은 점(주거만족도)에 대해 들어봄. 만족하는 편과 만족하지 않은 편으로 구분됨

- 만족하지 않은 경우는 식구가 많을 경우, 면적이 좁은 편이고 거주 지역에 원하는 평수가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면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집이 좁고 임대 아파트라 학교에 다닐 때 어디 사는지 부끄러워하고 10년 동안 같은 곳에

살아서 자존심이 상함. 열심히 일해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나 쉽게 벗어나지 못함.

· 북한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에서 사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음

- 만족한 경우는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한 주거에서 살고 있는 경우임.

· 임대아파트에서 나와서 집을 사서 살고 있음.

4.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정책,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봄

-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을 6개월 혜택을 받다가 대부분 자격을 벗어나므로 일을 해야만 함.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만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음. 일 하느라 바빠서 다른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함.

· 남북하나재단 정도는 알고 있고 여성일하기센터는 '다문화 여성'만 모집 하고 새터민은 신청 불가능함.

· 이주민을 위한 정부정책의 대상자에 새터민을 포함 시켜 주기를 바람.

5.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측면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겪은 차별 경험 여부를 살펴봄
 - 북한지역 언어(사투리)사용으로 인한 어려움, 남한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말투를 가지고 차별을 함.
 - 직내 괴롭힘, 갑질 : 인격모독, 따돌림, 왕따 심함. 대부분 직장에서 경험
 - (손씻고 다녀오면서 관리과 직원이 이유없이 나(북한이탈여성)에게 손에 묻은 물을 뿌림 => 분하여 “손 털 데 없어서 얼굴에 뿌리느냐! 나잇살 쳐 먹고 행동이 그 따위네”말함 =. 관리자 “손 털 데 없어서 털었다” 말함.
 - 사무실에서 남한출신 직원 편을 들고 사과하지 않고 사과했다고 거짓말함. 사무실에서는 남한사람 말만 믿었음.
 - 사회적 편견이 심함. 면접에서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하여 “북한출신” 이라고 하니, 서류를 덮더니 “어떻게 왔느냐” 고 물음/ 일터에서 이상하게 봄.

6. 노동권

- 노동권 측면에서 일을 하면서 여성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살펴봄.
 - 직장생활 중 사회적 편견과 의사소통(북한 말투, 언어장벽)의 어려움
 - 직장 내 괴롭힘(연가내면 싫어하고 심리적 스트레스 줌)
 - 일자리 찾는 데 어려움
 - 자녀 양육부담, 돌봄 어려움(맞벌이)
 - 직장 문화 적응 어려움

7.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측면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나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봄. 북한이탈여성은 폭력에 대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장내 괴롭힘이 있어서 스트레스로 15일간 울음. 힘들어서 직장 옮김.
- 일상행활 중 성추행 당한 경험 있음
- 가정폭력(중국출신 남편)이 있어서 딸이 경찰에 신고하여 1주일 가출함.

8. 건강권

○ 건강권 측면에서 충청남도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 이 있는지 살펴봄. 심리 지원서비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여행서비스 등의 정책이 필요함.

- 직장생활 중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 받음. 남한주민을 이해하려 고 하니 마음 편해짐
- 절약해도 경제적 어려움(공과금, 통신비 등)으로 스트레스, 불안감
- 핸드폰 구입 등 하면서 어려워 스트레스
- 북한에 두고 온 아이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니 스트레스
- 집에 있으면 심리적 불안이 있고, 집 밖으로 나가면 스트레스 사라짐.
-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하지 못함. 잠이 오지 않고 어지럼증 있음.

9. 사회인식 및 차별

- 북한출신임을 알고 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낀 적이 있는지 인터뷰 함.
- 대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게 표출 됨.
- 앞에서는 반가워 하며 응원하는 사람도 있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신기해 함.
-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는 사람과 “왜 남한에 왔느냐”고 묻는 중간 정도의 태도
- 강한 거부감과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태도가 확 달라짐

10. 남한사회 생활, 적응, 결혼

- 북한이탈남성보다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에 더 많이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 인지 질문 함.
- 북한에서는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고 남성은 장사 등을 회피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큼. 이대로는 못살겠다 싶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중국으로 나옴. 그 이후 중국보다 신분이 보장되는 남한으로 입국

11. 정책지원

- 정책지원 측면에서 충청남도 혹은 거주하는 지역(시·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도움 정도에 대해 들어봄. 인터뷰 대상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년에 한번 하는 송년회, 설, 추석 행사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됨
-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고 사람을 만나서 도움이 됨
- 만족함, 거제도, 제주도 등 여행가고 싶음.
-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하여 탈락됨

▶※ 자료발췌 ※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 P 176~194

감사합니다!



자녀교육의 사각지대문제 지원정책

- 서산석림사회복지관 김정순 부장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개선방향

○ 발제자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김정순 부장(서산석림사회복지관)

I. 들어가는 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¹⁾을 우리는 ‘먼저 온 통일’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²⁾’ 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 포장되는 이들에게 과연 당사자들이 그렇게 느껴질까 질문을 던져본다면 ‘글쎄’ 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 후보시절 2월 19일(토)에 ‘탈북민에 대한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³⁾.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전면 개편을 말하면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였다.

그 공약속에 탈북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각종 경제·사회적 통계 수치에서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탈북동기에 ①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 41.0%, ②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31.0%, ③ 식량이 부족해서 28.5%, ④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17.4%, 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14.7%로 집계됐다⁴⁾

발제자는 부족하지만 사회복지실천 현장인 서산지역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부 지원 정책

1.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제2조)

2) 청소년복지론. p.6.

3) 국민의 힘 블로그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p.93.

최근 통일부의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2021년 6월 기준 총 33,788명으로 남성이 9,455명, 여성이 24,333명이다. 연간 입국인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연간 3,000명 가까이 입국하였으나,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접경지역 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인원이 감소하여 연간 1,100~1,500여명 수준 유지, 2020년은 229명이 입국하였다.

2021년 6월 말 기준 입국인원은 36면(2020년 대비 111명(75.5%)감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통제, 제3국에서의 이동 제한 등의 영향으로 입국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⁵⁾.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1998년~2021년6월말 기준, 단위:명)

구분	1998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남	831	565	511	474	626	424	515	573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합계	947	1,043	1,143	1,285	1,898	1,384	2,028	2,554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여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합계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1.6.(잠정)	합 계	
남	302	188	168	202	72	20	9,455	
여	1,116	939	969	845	157	16	24,333	
합계	1,418	1,127	1,137	1,047	229	36	33,788	

자료

:

[https://www.unikorea.go.kr/viewer/skin/doc.html?fn=2021101515240862426.pdf&rs=/viewer/doc/202204/\(검색일:2022.4.03\)통일부Home>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책자료실](https://www.unikorea.go.kr/viewer/skin/doc.html?fn=2021101515240862426.pdf&rs=/viewer/doc/202204/(검색일:2022.4.03)통일부Home>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책자료실)

탈북청소년 및 탈북민자녀의 가족관계 현황을 살펴보면, 편모 48%, 편부 5%, 무연고 25%, 양친14%이다. 양친 14% 중 다시 남한 입국 후에 57%가 이혼을 하여 탈북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큰 심리적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다⁶⁾.

2. 최근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정책

5) 통일부,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9.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어깨동무하기 메토 아카데미』, p.15.

최근 문제인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통일부의 2022년 업무보고⁷⁾를 살펴보면 탈북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부 추진계획이 나타나지 않아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통일부의 2013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정부 방침은 한마디로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내용을 갖는다. 그중에 한가지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내실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첫째, 애로사항 해소 및 학업상담을 위한 「전담코디네이터」선발·운영 등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교육부 협업), 둘째, 방과후 공부방, 화상영어교육 등 일하는 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확대, 셋째,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등 해외연수 지원 등이 2013년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다⁸⁾.

적어도 자녀를 둔 탈북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언급된 업무보고에 심리적으로나마 안정이 되었을 것이다.

Ⅲ.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체계

1.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체계

현재 탈북민의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재단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면 취업지원사업, 의료비지원 등 바로가기 창이 보이지만, 교육지원 창은 보이지 않는다. 새소식 창에서 유관기관의 장학생 선발 공지 등을 볼 수 있는 정도이다.

2. 충남 및 서산지역 현황

재단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지역 하나센터의 전화번호만 게시되어 있어서, 지역하나센터를 다시 검색해야하고 지역하나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탈북민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는 없다. 결국 전화를 걸어서 상담사를 찾아야 하는 시스템이다.

2010년에는 서산에도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가 본 복지관에 상주하였었다. 하지만, 전문상담사의 은퇴로 인해 공백이 생겼고, 하나센터에서 일주일에 1일 파견나오던 상담사도 이

7)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report/?boardId=bbs_0000000000000008&mode=view&cntId=47289&category=&pageIdx=\(검색일:2022.4.03\)](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report/?boardId=bbs_0000000000000008&mode=view&cntId=47289&category=&pageIdx=(검색일:2022.4.03)) 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2022년 추진과제는 3개를 선정하였다. ① 일관된 대북 통일정책의 추진, ②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③ 국민 체감, 지속 가능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8)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report/?boardId=bbs_0000000000000008&mode=view&cntId=44298&category=&pageIdx=\(검색일:2022.4.03\)](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report/?boardId=bbs_0000000000000008&mode=view&cntId=44298&category=&pageIdx=(검색일:2022.4.03)) 에서 일부 발췌함.

직을 한 후에는 결원이 되어 이제 서산지역을 담당하는 전문상담사는 없고, 단지 하나센터에서 서산지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뿐이다.

서산지역을 관할하는 하나센터는 충남하나센터로 천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과거 상담거리가 있으면, 복지관으로 달려오거나 상담사가 집으로 방문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웃분들이 많이 계신다.

IV.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과제와 개선방향

1.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과제

탈북청소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동질적 집단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말 그대로 탈북민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3국 출생자녀도 있고,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 부모가 남북한인 경우, 부모가 모두 북한출신인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으로 이에 맞는 맞춤형 상담이 절실하다.

남한출신의 부모들도 어려운 것은 자녀교육이다. 하물며,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탈북민들에게는 자녀교육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서 탈북동기에서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17.4%’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어찌보면 남한에서의 치열한 취업경쟁과 탈북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등과 싸우느라 자녀의 교육에는 고민을 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

2.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개선방향

1) 부모교육 실시

미취학 및 학령기 자녀를 둔 탈북민에게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사회에서 본인들이 경험한 것으로는 남한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교육해 줄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의 사회 변화가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⁹⁾.

하물며, 다른 체제속에서 살아온 탈북민부모들에게는 남한사회의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다.

9) 청소년 심리 및 상담. p.137.

2) 탈북민특성을 반영한 학교교육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낮은 자존감, 정신지체, 간질, 지적 능력 결핍,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정서적 장애 등을 들 수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 이혼에 따른 가정불화, 부적절한 가정환경, 방임적 태도, 모(母)의 정신적·신체적 질환, 부(父)의 무능력, 빈곤 가정 등의 가정적 측면의 어려움, 학업 부진, 급우들과의 마찰 등의 학교 환경적 측면의 어려움,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사회환경적 측면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¹⁰⁾.

여기에 탈북민부모가 자녀에게 본인들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것을 담임교사나 교과목 교사로부터 커밍아웃이 되었을 경우 탈북민 자녀들이 받는 충격은 엄청나게 다가온다.

학교에서는 탈북민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북민 자녀들과의 상담시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3) 찾아가는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확대

충청남도도차원에서 지원되는 ‘찾아가는 가족통합교육 서비스’가 탈북민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더 많은 탈북민자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려면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4) 전담인력 배치

충청남도에 있는 ‘충남하나센터’ 한곳만으로는 서비스제공 및 상담에 한계가 있다. 하나센터와 MOU체결을 한 본 복지관에서도 기존업무에 추가로 탈북민사업을 진행하기에 세세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협력센터의 개념으로 인식해주고 그곳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어 물리적 거리로 인해 서비스제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협력센터에 전담인력이 배치 된다면 하나센터와의 협업에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것이며 탈북민 부모가 자녀교육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줄 것이다.

5) 지역사회복지관의 적극적인 활용

본 복지관의 예를 들자면, 복지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계획으로 세워지면 우선적으로 탈북민 자녀가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프로그램 정보에 취약한 탈북민들에게 개별안내와 프로그램소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10) 학교사회사업론. p.244.

V. 맺음말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우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를 ‘미래의 주역’이라고 칭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제도적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현장에서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탈북민들이 자녀를 위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려 할 때 쉽게 접근하여 상담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찾아보면 막연한 마음이 들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자녀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곽중문(2014). 『어깨동무하기 멘토 아카데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영희 이복희 공저(2009). 『학교사회사업론』, 양서원

유진이(2017).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양서원

최정진(2013). “2013년도 제2차 권역별 세미나”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지역 사회의 역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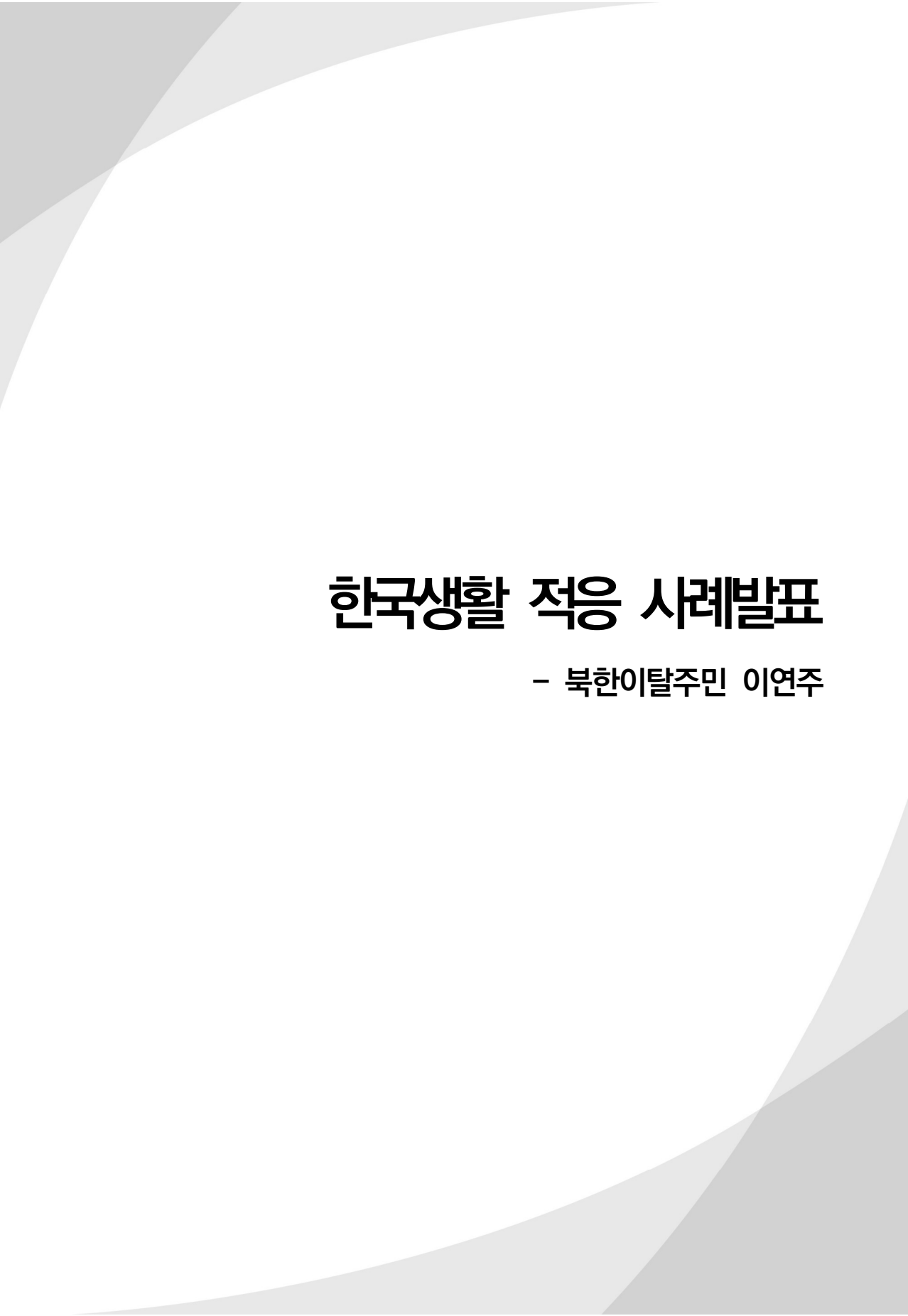
홍봉선 남미애 공저(2007).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통일부(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국민의 힘 블로그(2022).

통일부 홈페이지(2022).



한국생활 적응 사례발표

- 북한이탈주민 이연주

한국생활 적응 사례발표

이연주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온지 만 16년이 되었습니다.
- 오늘 저는 한국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웠던 부분들과 원하는 지원들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 폐쇄적이고 통제적이었던 북한사회에서 23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하나로 하루 하루를 필사적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열려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적응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북한에서는 매일 매 순간 감시와 통제속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서의 사회환경, 국민들의 문화환경에 적응은 나에게 넘기힘든 벽이었다.
- 특히 심각한 함경도 사투리, 높은 억양에 자격지심 등 23년동안 쌓이고 쌓인 습관들, 의심병 때문에 힘든시간을 보낸 것 같다.
-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잡은 직업은 미용사였고 자격취득후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면서 사투리 억양과 굳어진 표정 때문에 “찾아온 손님도 다시 나갈 것 같다”라면서 채용이 어렵다는 원장님의 답변에 상처를 받은적도 있었습니다.
- 북한에서 매일 감시와 통제속에서 살아온 트라우마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하고 농담이나 먼저건네오는 인사나 자구마한 호위, 배려에도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불신을 품고 방어하고 또 혼자 상처받고 그러는 나 자신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이해하고 그 벽을 넘어 극복하고 적응하는데 근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심리상담과 사회복지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것 같다.
- 시간이 흘러 미용기술도 습득하고 자영업을 준비하면서 자금확보의 어려움도 있었고 경영하면서 인맥네트워크 부족으로 초기경영에 어려움도 많았다.
- 또한 결혼과 함께 두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가 커갈수록 사교육비부담과 또 자녀의 진로진학을 리드해주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우리는 북한에서 나서자라 진로진학에 대해 고민해본적이 없었고 남한의 진로진학경험이 없어 생소한 언어와 진로진학 선택에 조언이 어려워 자녀들과의 갈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도 있다.
- 남남북녀의 결혼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성공적으로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는 확률도 저저하다.
- 이유는 문화차이와 언어장벽 성격차이, 트라우마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심리상담이 많이 필요하고 준비된 동료전문상담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라는점

-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취약계층 가정외에 부부간이 다 북향민이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월급만가지고 두 자녀를 키우기는 매우어렵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위주로만 자녀등 지원사업만 확대되어 있다.

- 자녀들의 교육비나 지원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에게만 하지말고 좀더 확대하여 북향민 부부이면서 두자녀이상가정에도 자녀 사교육비와 다른 복지혜택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영어, 수학등 사교육비, 자녀와 함께 역사문화탐방비용,등 지원해주시면 도움이 많이될 듯합니다.)

- 경기도에서는 북향민 가정의 역사문화탐방비용을 지원해주어서 가정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한분들이 반응은 소중한 추억을 쌓을수 있어 넘 좋았다고 한다.

- 지원조건은 온라인으로 인강의와 문화에대한 강을를 수강함으로 배움도 있고 즐거움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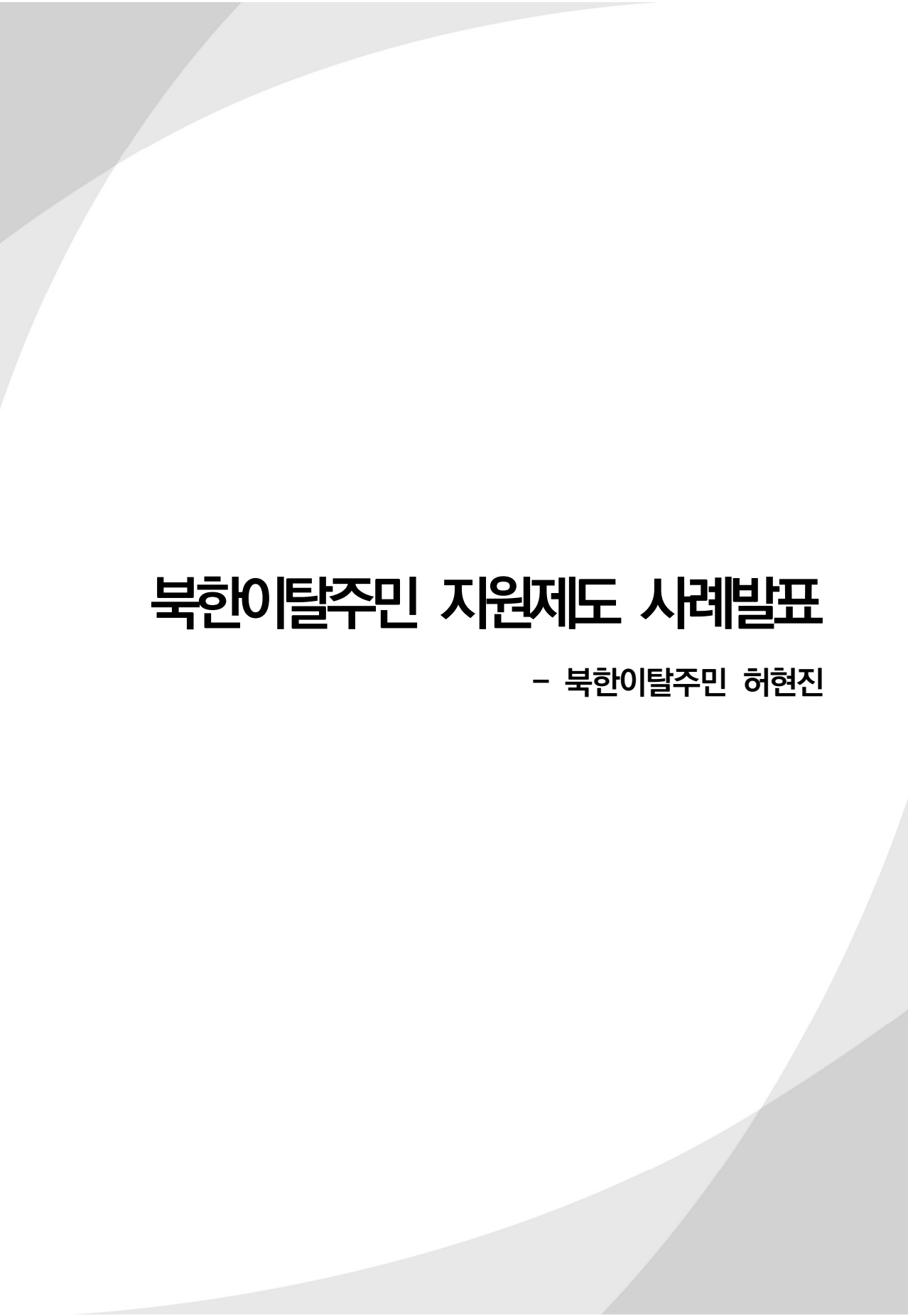
- 두 번째로 바라는 점은 남과 북향 주민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한 실속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동아리모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알아가고 도움이 되는 동아리활동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 세 번째로는 북향민들의 농업인이나 자영업인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연계 및 영입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북향민들의 지역사회에서 인맥네트워크를 다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지역사회에서 북향민들의 농산물이나 자영업인들의 생산품을 알릴수 있는 전시회같은 행사를 할수 있게 축제현장에 전시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주고 알림을 통해 참여도도 높일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 또한 리더양성을 통해 공공기간에 취업과 북향민들을 위한 전문상담사들을 지역마다 배치하여 행복한 가정성장과 트라우마치유를 통해 사회정착을 잘하여 대한민국정착에 도움이 되는 북향민들과 통일리더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원제도 사례발표

- 북한이탈주민 허현진

사례발표 2

허 현 진

목 차

1

지원제도

2

지원제도의 효과(좋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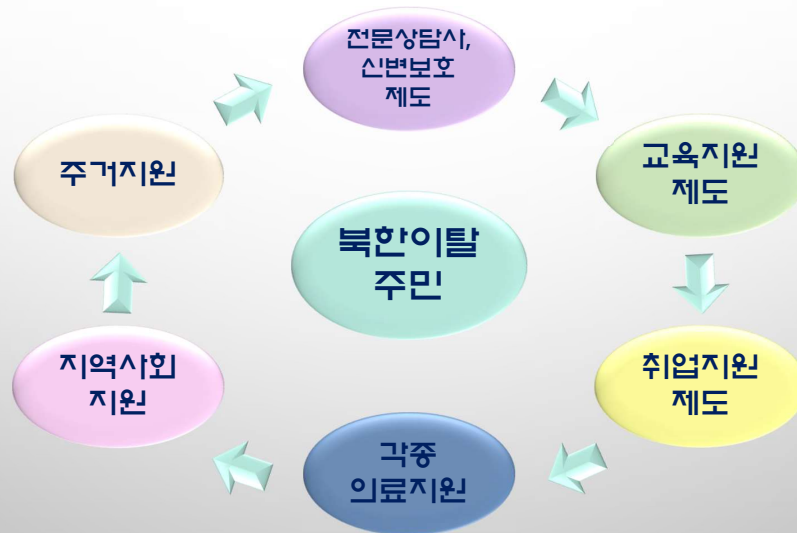
3

힘들었던 부분

4

필요한 부분

지원제도



지원제도의 효과

전문 상담사,
신변보호
제도

- 여러 가지 생활적, 교육 및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받음
- * 1:1 상담을 통한 전반적인 어려움 해소
- 법 관련 교육 진행, 피해사례 사전 공지
- *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 대처하는 데 도움

교육지원
제도

- 정규교육, 직업훈련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에 도움
- * 취업에 필요한 실무능력 및 전문적인 기술습득, 자신감 향상
- * 컴퓨터자격증 과정,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 대학교 등록금 지원
- * 자격증 취득지원제도를 통한 취업 동기부여

취업지원
제도

- 3년간 동일 기업재직 시 취업수당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 * 장기근속 유도, 장기근속을 통한 경력자, 능력자로 인정
- * 경제활동 활성화 및 가정경제 안정화

지원제도의 효과

각종 의료지원

- 정착초기 의료급여 1종 혜택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
- 암, 희귀성 질환 등 각종 수술에 대한 의료지원으로 생활 안정화
- * 2차례의 수술비와 1차례의 응급 수술비 지원

지역사회 지원

- 복지관, 경찰서, 하나센터, 지자체, 봉사단체, 개인 등
- * 쌀, 식품, 이불 등 생활 필수품 지원
- * 응급상황 시 긴급의료지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

선배와의 멘토링

- 다양한 지역정보, 문화정보, 사소한 가정생활정보 등 제공
- * 사회생활, 정규교육, 학원, 보험 등

힘들었던 부분

언어소통

- 외국어를 많이 쓰는 데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
- * 기술적인 용어(작업도구명), 생활적인 언어 등

문화적 차이

- 상사 대상 관련, 회식 문화,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
- * 손님대접 문화 등

정보부족

- 자격증 분야, 취업정보, 지역정보(병원, 학원, 학교) 등

경제적 어려움

- 주택, 의료부분 등
- *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

편견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 * 북한이탈주민 채용 거부 등

필요한 부분

1.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필요 (서산지역)

* 취업, 학업, 학원, 자격증 분야, 주택관련, 심리적 상담 등

2. 취업대비 프로그램 필요

* 취업 전 직장인 마인드 교육, 대인관계 형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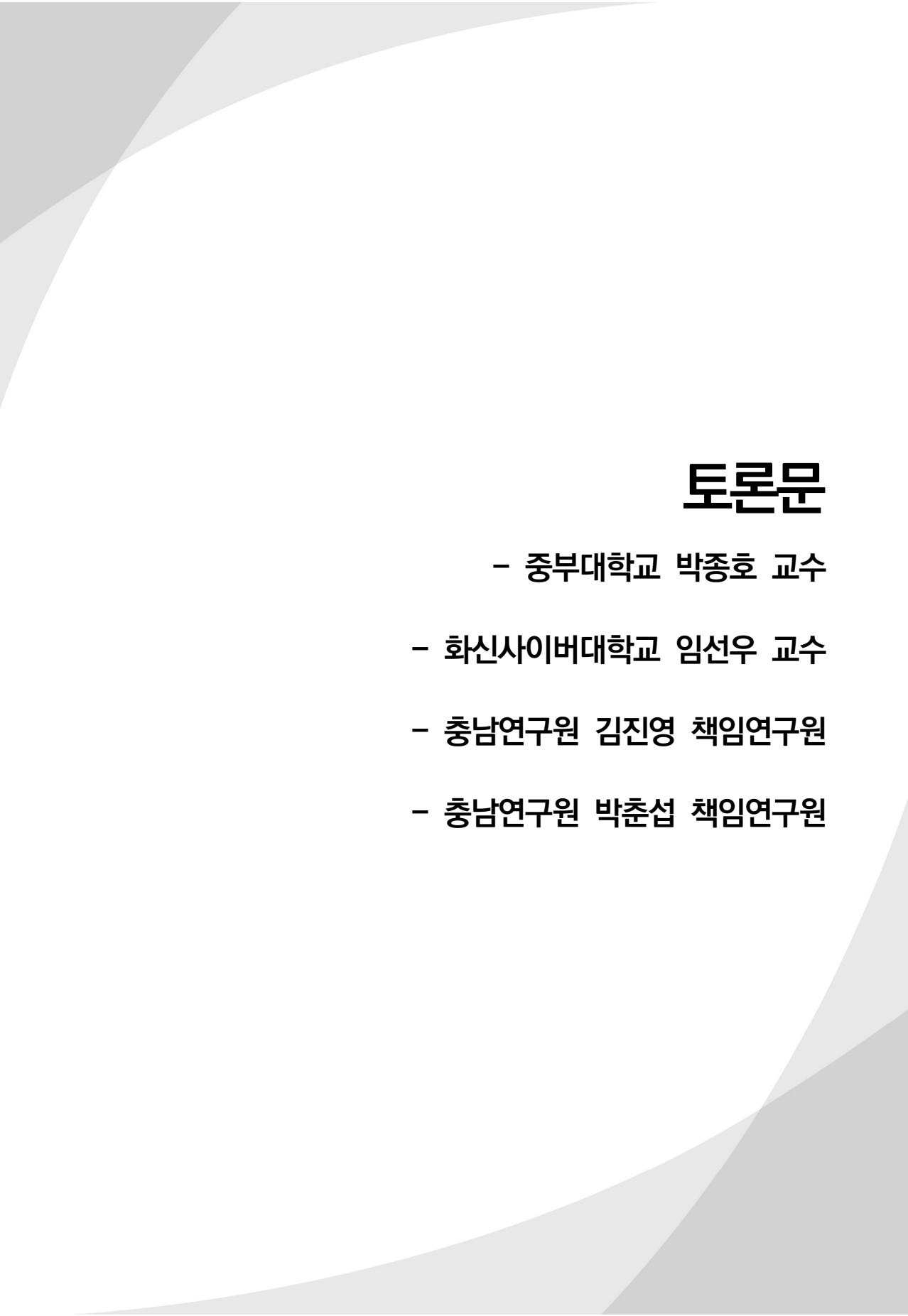
3. 임대아파트 입주기준 완화

4. 선배와의 멘토링(정착 도우미)

5. 어려운 대상자 파악 및 사후관리

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감사합니다!



토론문

- 중부대학교 박종호 교수
- 화신사이버대학교 임선우 교수
- 충남연구원 김진영 책임연구원
- 충남연구원 박춘섭 책임연구원

토론문

중부대학교
박종호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도정 목표가 있는 충청남도에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포용해야 할 계층인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나가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생활 정착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미래에도 한국 사회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나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자유와 평등, 개인의 가치 추구를 추구하면 살아갈 권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번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분야별’,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지원 개선방향’은 현재 충남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의미 있는 발표라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교육격차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나아가 교육격차는 한국인들의 생애주기 전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교육격차는 소득의 불균형, 지역 불평등, 자산 불평등, 주거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상실감을 더욱 커질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한국의 교육 환경이 상당히 낯설 것이다. 충남의 경우 드림학교가 있으나 드림학교의 교육이념이나 목표가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나 교육과정은 현재 일반적인 한국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 진학, 진로 지도 등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본다. 결국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구성원으로서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이 경쟁력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때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반으로 저층에서 마련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관계부처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보면 탈북학생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통일전담교육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탈북학생 기준인원을 기반으로 통일전담교육사 우선 배치를 추진한다거나 탈북학생의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멘토링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한 탈북여성 보육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이다. 정부 부처나 충청남도의 계획이 과연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을 얼마나 반영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충남·세종 지역의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2021년 교육부 통계상 161명이다. 이들에게 학교의 운영 방식이나 학교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매뉴얼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 편견 등을 없애기 위한 한국 학생들의 사고 전환 교육 등도 필요하다. 또한 기존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학부모 간 이해교육도 자녀 교육이나 자녀 교육을 위한 정책 시행 이전에 상당히 중요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어찌면 또하나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들이 한국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면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1998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북한이탈주민은 33,000여 명에 이른다. 최근 한국 사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의 수에 비하면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가 하나되어 가는 길목에서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 정착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삶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기 바란다.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분야별 발표” 의 토론문

임선우
(화신사이버대학교)

충남 지역 북한이탈여성의 증가와 함께 정착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됨에 있어서 현재 여성의 인권 분야별 발표에 나타난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반영하였다는 것에 의를 두고자 한다. 내용면에서 세대 간 차이의 부각,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에서의 이러한 조사는 매우 귀중하다고 보인다.

본 발표에서 충남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실태조사를 반영한 인권 분야별 요약 발표에 나타난 북한이탈여성의 현안에 대해 느낀 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여성이 증가하는 시사점이 발견할 수 있기에 공감의 간다. 둘째, 남한 생활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달라지고 영향을 받는지를 유형화한 인터뷰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면 충남 지역 북한이탈여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셋째, 정책적 지원에서도 음지가 아닌 양지 뜰에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접근성이 쉬운 적극적인 사회복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를 목적에 두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본 발표를 통해서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 실질적인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현장에서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가장 큰 방해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귀한 발표를 해주신 김윤태 북한이탈주민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토론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토론문 >

김진영 (충남연구원)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정책대상의 다양함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내(內)에서도 (성별, 나이별 등) 다양한 세부 집단이 있으며, 이러한 세부 집단별로 요구되는 세부 정책영역이 서로 다름
 - 오늘 워크숍 발제의 내용도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정책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생애주기 또는 전주기적인 정책 필요
 - 경제적 문제 → 인권 문제로 정책수요(및 정책 문제)가 확장되는 경향도 반영할 필요 있음
 - 심리상담과 같이 경제적 지원 이외의 지원정책도 반드시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특히 결혼이주여성 정책)의 진화(발전) 과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문화가족정책에서도 초기에는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정책 실시
 -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남편 등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으로 확대
 - 최근에는 자녀교육을 포함하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확대

- 타 시도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
 - 오늘 워크숍이 “충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마련을 위한 워크숍인 만큼, 타시도의 사례(사례발표에서도 제시되는 내용 포함)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토론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세대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춘섭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유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 생각한다. 그들의 갈망하는 자유가 정치적 이유이건 경제적 이유이건 상관없이 존엄한 인권을 보호받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 연고도 없고, 자산도 없는 그들이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제도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 자녀 교육문제 관련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결핍에서의 자유 → 역량개발의 자유 기반한 정책추진 노력

- 기본적으로 자유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의 용인, 최소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노직)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정부의 약자구제를 주장하는 자유주의(롤스)로 나뉜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적극적으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들은 자유주의 원칙에서 경제적 지원(기본재의 분배)을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적극적인 ‘역량증대’ 기초로 정책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센은 entitlement를 기초로 자유를 주장한다. 그는 롤스의 자유주의의 한계는 기본재의 분배가 이루어짐에도 일부 사람들(예, 장애인)은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 똑같은 재화(자전거)를 제공해도 장애인은 누릴수 없다.
 - 각자 상태에 따라 재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capability)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entitlement의 묶음을 가질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 역량의 개발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충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

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자녀(청소년)세대의 역량강화(교육지원)를 위한 지역사회모델 검토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세대에 관심은 높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 발표문에서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17.4%)’가 주요한 탈북 동기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녀들의 교육성취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우선 교육방법과 내용이 다르다.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녀들은 한국 학생들과의 교육격차를 체감하게 된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2018년 1월 말 약 18%는 대안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 다음은 가정내 교육환경이다. 부모의 관심은 높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트북 등 고가의 학습기자재의 구입, 사교육기관(학원) 등 지원을 할 수 없는 환경이 갇출 수 없다는 것이다(엄현숙 외, 2021)¹¹⁾.
-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프로그램 도입 필요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으로, 우선 정책적 주안점은 취약계층(수급자) 중심지원¹²⁾ 및 지역사회 정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아래 그림 참고).
 - 자녀세대에 대해서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등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은 존재하나, 발표자의 내용처럼 지역차원, 특히 시군차원에서 역할을 한계가 존재한다.
 - 그러므로 지역차원에서 지자체(광역시 및 시군)·시민사회·북한이탈주민 등 협력체를 구성하여, 당사자 필요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11) 팬데믹 시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111호(2021)

12)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등 발표, 하나센터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발굴 등 추진

Ⅲ . 2022년 정책 추진 방향

비전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
기본방향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추진
추진방향	❶취약계층 지원 강화 ❷정서·심리지원 내실화 ❸지역공동체 역할 확대
세부과제	✓6대 분야 ✓51개 세부과제

[1] 취약계층 지원 강화

- ① 신규 '안전지원팀' 출범, 위기 탈북민 신속원스톱 지원체계 정립^{과제2-2}
- ② 신규/발전 사례관리 협업연계 확대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통합 지원^{과제3-1}
- ③ 발전 취약계층 탈북민 대상 긴급생계지원 예산 증액^{과제3-4}
- ④ 신규 북한이탈주민 고독사 예방·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제3-4}
- ⑤ 발전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지원 확대^{과제4-8}

[2] 정서·심리지원 내실화

- ① 발전 상담거점(하나원·하나센터·남북통합문화센터)간 연계를 통한 밀착 지원^{과제3-6}
- ② 신규 심리안정·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운영^{과제3-7}
- ③ 발전 실질적 고충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 사후 지원체계 강화^{과제6-7}

[3] 지역공동체 역할 확대

- ① 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협의회 운영 강화 등 정착지원 역할 확대^{과제2-1}
- ② 발전 가족결연, 문화활동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소통교류 활성화^{과제1-3}
- ③ 발전 남북주민 상호 이해·소통·교류를 위한 남북통합문화센터 활성화^{과제1-1}

출처: 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 사례- 대구하나센터의 발개돌이 학교

- 탈북아동 및 청소년의 정착지원과 통일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사업으로, 2010년부터 남북하나재단과 삼성꿈장학재단으로 지원으로 발개돌이공부방으로 시작하여 발개돌이 학교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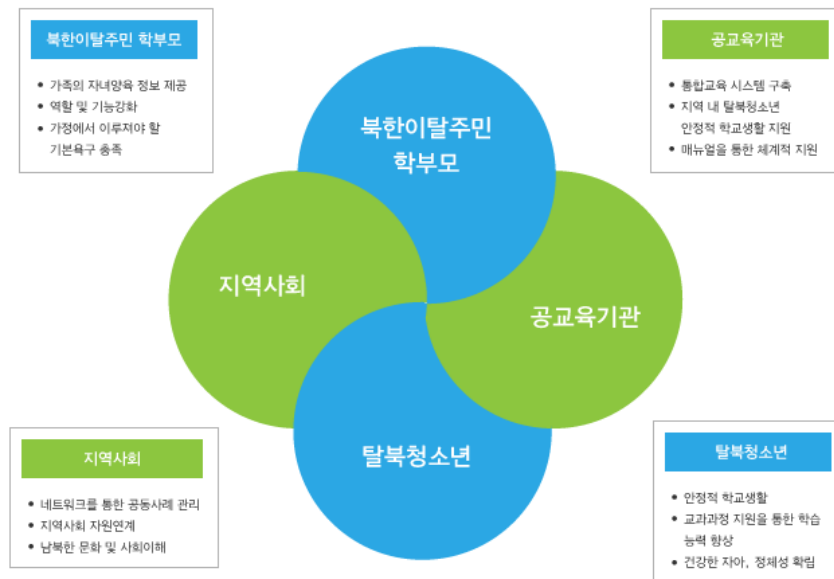
“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과 양육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고민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다음 세대의 새로운 주역이 되어야 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
(김동은 운영위원장(의사))

- 발개돌이 학교는 대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대구하나센터 위탁운영)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사업으로, 기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측면보다 사회로의 적응을 고민하여 추진된 사업이다¹³⁾.

- 탈북청소년 정체성 확립 및 건강한 자아형성, 가족기능강화 및 유대감 증대
- 탈북청소년 지원의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및 향상
- 통합교육시스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 교육 현장의 통일인식 및 공감대 형성

- 학교를 운영하는 자원은 예산(재단, 교육청 등)과 함께 봉사자 및 기관 등 지역사회 연계된 모델이다.



출처: 대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 홈페이지

- 발개돌이학교는 영유아에서부터 대학생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¹⁴⁾.

13) 담당자 인터뷰

14) 2021년부터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이 종료되어, 발개돌이학교 운영에 당

1. 학습프로그램
 - 1:1 멘토, 멘티 연계,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교과수업)
 - 영어민강사 연계를 통한 영어학습 및 타국문화 체험
 - 진로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 진로설정 및 기획
2. 문화프로그램
 - 남북청소년 역사기행(남한역사경험, 참여학생 주도적 진행)
 - 문화체험을 통한 남한문화 이해
3. 정서프로그램
 -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교육, 진로코칭 등의 부모학교 프로그램
4.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 지역유관기관 네트워크,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5.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
 - 탈북청소년가정 전수조사 및 실태파악, 초기지역전입 탈북청소년 학교연계지원
 - 공교육기관 네트워크, 지역맞춤형 진학안내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학교는 지역사회와 청소년간의 통합을 위한 교류프로그램으로 확대된 성과도 있었다
(아래는 고베코리아문화센터와 진행한 국제교류프로그램 활동 사진)



출처: 대구 더나은 세상을 위한 공감 블로그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

Memo

[illegible]